

기업유치·광주형일자리 창출

이용섭 광주시장

도시철도 2호선 '민관협치'로 해결
GGM 공장 준공·AI 융복합단지 조성
코로나 대응·출생아 증가 높은 평가
광주 군공항 이전·어등산 문제 속제로



여기에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스마트에너지를 거점으로 주력산업단지 4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국내외 투자 유치 및 광주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취임 3년을 맞은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역의 산업지형 변화 등을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성과로 꼽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민관협치'를 통한 숙원사업 해결,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 출생아 수 증가 등도 민선 7기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현안 과제인 광주 공항과 군 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은 민선 7기 남은 1년 동안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는 광주=산업 불모지였던 광주에 완성차 10만대 생산 규모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 공장이 들어오고,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AI) 융복합단지가 조성 중이다. 두 산업은 향후 광주 경제발전을 이끌 양대 축이다. GGM은 세계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로 탄생했고, 23년만에 국내 자동차 공장이 광주에 건설되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완성차 생산에 들어가고 현재까지 53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앞으로도 직접 고용 1000명, 간접고용 1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건설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구역을 지정되면서 광주가 친환경 자율주행시대 선도 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AI산업도 민선 7기 광주가 선점했다. 첨단3지구에 국가산업으로 AI융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국가 AI데이터센터도 들어선다.

이로 인해 AI기업과 인재들의 광주행이 이어지고 있다. AI기업 96곳이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56곳이 광주에 법인이나 사무소 등을 개소했다.

67.9%에 해당하는 24개 도시공원을 공원 일몰제 시행 전 특례사업 고시로 지켜냈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원면적 비율이 90.4%로, 전국 평균 81%에서 가장 높고 건설업체 과다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출생아 수 증가, 코로나19 선제적 대응도 높은 평가=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광주만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지난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2769명으로 지난해보다 7.2% 늘었다. 이는 민선 7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실현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광주시는 국내 첫 병원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대구와 병상 연대, 민관공동대책위 운영, 격리자 해제 전 의무 검사, 요양시설 전수검사 등 선제적 조치를 이끈 점도 성과로 꼽히고 있다.

◇남은 해결 과제=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용섭 시장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무총리실 내 범정부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용해 이전 후보지 조기 결정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근대유산 전남방직·일신방직의 보전과 개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등도 광주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내 차체 조립 라인이 시험 가동되고 있다.

한전공대·해상풍력단지 구축

김영록 전남지사

블루 이코노미·전남형 뉴딜 토대 마련
한국섬진흥원 유치·인재 육성 등도
인구 감소·불균형 등 추세 여전
국가균형발전·광주와 협력 과제로



반영되는 등 전남의 새로운 미래로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그동안 미진했던 SOC 국가 계획에 포함시켰다. 경전선(광주-순천) 고속전철화(예타 통과), 남해안고속철도(2023년 개통) 등이 가시화됐고, 백리섬섬길 등 10여개의 연도·연륙교는 완공되거나 착공했다.

민선 7기 김영록 전남지사가 임기 4년 가운데 3년을 마쳤다. 그동안 난항을 거듭했던 철도, 도로, 항만 등 도내 시급한 기반시설들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한전공대·국립한국섬진흥원 등 지역 미래를 짊어질 혁신 거점기관 유치, 2030년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에너지산업 시스템 구축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명실상부한 토대를 만들었다. 또 새천년 인재 육성을 통한 으뜸인재 발굴 및 지원, 전국 최초 농어민공익수당 도입·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영, 남도장터 매출 60배 증가 등 앞선 농어민 대책 등도 과거 어느 지자체도 시도하지 못했던 신선한 시도였다.

하지만 이를 성과로 예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민선 7기의 정책과 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해 여전히 인구소멸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전남의 인구는 지난 2011년 191만4000여명에서 10년만인 2021년 4월 현재 184만4000여명으로 7만명이 사라지는 등 민선 7기에도 감소 추세다. 다만 전남의 가구당 소득이 2018년 4777만원에서 2019년 4981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2020년 5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제시, 광주와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모색 등이 앞으로 1년 남은 민선 7기의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김 지사는 28일 민선 7기 3년 '도정 성과와 미래 비전'이라는 주제의 프리젠테이션을 직접 발표했다. 그만큼 성과에 자신이 있었다는 의미다. 10대 성과를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로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을 꼽았다.

전남의 청정 자원과 4차 산업혁명기술을 융복합하겠다는 의미의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는 핵심사업이 대거 정부예산에

2030년 세계 최대 규모의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한전공대 중심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조성,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바이오산업 국가거점 구축,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등 전통주력산업 재도약, 농어업의 가치 제고와 농어민 소득 안정, 전남 체류형 생태관광 중심지 조성, 전남행복시대 실현 등도 10대 성과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이어 기후변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미래 전남 발전을 견인할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기존 성과에 전문가의 아이디어, 세계 선진국들의 모범사례 등을 접목시킨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내놓은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에너지섬',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원격의료·협진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네덜란드 푸드밸리형 첨단 농축산 융복합단지' 조성,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가 대표적이다. 남도의 국악, 판소리, 창 등 남도의 전통 소리를 디지털 융복합콘텐츠화해 소리융합 산업을 육성하는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구상이나 서해안고속철도를 신설해 군산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환해권 국가철도망' 등도 눈에 띈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3년, 전남 행복시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쉽지 않았지만"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착공식이 지난 1일 오후 나주 빛가람동 부지에서 열렸다.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